

GOVP1199809797

351. 8233

L 293ㄴ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설명자료

1998. 7

농 립 부

# 목 차

I. 농림부 환원의 당위성 .....	5
II. 문화관광부 주장에 대한 검토 .....	11
III. 마사회 환원관련 공약, 성명서 및 언론보도 .....	17
〈참고〉 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62

여 백

##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키로 결정한 배경

□ 한국마사회를 '92년 1월 체육청소년부로 편법이관한 이래 농림부로의 환원은 전국 축산농가의 숙원사항이 되었음

- 농림부에서 1949년 설립하여 육성해온 한국마사회를 협의조차 없이 힘으로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하여 이관해 간 이래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농민여론 증대
- 마사회 이익금의 축산업구조조정과 경영안정에 대한 기여가 미흡
- 경주마를 주로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말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계가 없어지고 외화를 낭비
  - 경주마 생산가격 : 미국산 3,250만원, 국내산 2,530만원

□ “희망의 농어촌사회건설”을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동으로 제15대 대선공약으로 채택

- 농업경쟁력 강화와 제2의 UR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택
- 농업인들은 마사회 환원을 어려운 농가를 위한 부채대책으로 이해

□ '98.5.18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합동 당정회의시 정부조직법 개정 등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년내에 완료키로 결정

□ 한나라당에서는 5.21 마사회 농림부 환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 '98.6.22 고위당정조정 회의시

- 5.18 발표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등의 후속조치를 조기에 가시화키로 확인

여 백

# I. 농림부 환원의 당위성

여 백

## I. 농림부 환원의 당위성

### 1. 마사회 업무는 그 본질이 고유의 축산관련 업무임.

- 경마는 역사적으로 말의 경주성적을 기초로 한 혈통개량수단으로 발달
  - 경마의 시행 목적은 경주마의 주행능력을 기초로 혈통을 개량해 나가는 것이며, 사육기술과 훈련 및 개체별 혈통관리가 우수한 경주마 생산의 핵심 관건임.
  - 영국, 캐나다등 대부분의 선진경마 시행국의 경우 우수마필의 선발과 다량 생산을 위하여 경마를 도입하였으며, 이것이 발전되어 현재의 경마제도로 정착
- 따라서 한국마사회법상 경마의 시행 목적이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임
  - 경마는 말을 경주주체로 한 말의 경기로서 풍부한 우량마필의 생산과 개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간의 신체적 능력과 기술에 의해 우열이 가려지는 레저용 스포츠인 경륜·경정과 본질적으로 상이함.
  -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마사업무를 축산업무를 관장하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임
- 경마산업을 마권발매와 경주마간의 우열을 가리는 베틱만을 부각시켜 단순한 레저스포츠로 분류하는 것은 경마산업의 전체모습을 모르기 때문임
  - 경마산업은 말의 생산에서부터 사육 및 품종개량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산업이며 마권발매 등의 경마는 마사회 업무중 일부에 불과
  - 축산업도 가축의 사육, 품종개량, 질병관리, 축산물가공·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소비단계만을 기준으로 한 산업을 분류할 수는 없는 것임



## 2. 잘못된 역사(문화관광부 이관논리와 절차)는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함

### □ 마사회는 본래 농림부에서 설립·발전시켜온 조직임

- 우량종마의 육성 등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을 위하여 농림부가 1949년부터 「한국마사회」를 설립·육성하였으며, 국산경주마의 생산과 지속적인 혈통관리를 위하여 '91.12까지 농림부에서 계속 관장하여 왔음.
  - 특히 뚝섬경마장의 과천이전과 제주도 말생산목장육성등을 통하여 오늘의 경마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 '92.1 체육청소년부 이관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주마 생산농가의 마필생산을 지원하여 왔음('93~'98년간 18,368백만원 지원)

###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과거에 잘못을 사회정의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임

- '92.1월 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은 역사적 배경, 농업인들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채 당시 주관부서인 농림부와는 협의 없이 정부조직법의 부칙을 개정, 하자 있는 절차로 이루어진 사항이며,
  - 편법이관 이래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는 것이 전국 축산농가의 숙원사항이 되었음
-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개혁차원에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밀실정치의 표본이었던 마사회 편법이관을 바로잡아야 함

###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문제는 정부와 정치권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임.

-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임 (공약내용 첨부)
- 당·정협의를(5.18, 6.22, 6.23)에서 마사회의 농림부 년내 환원 확인
- 야당인 한나라당의 마사회 농림부 환원 입법안 제출(5.21 입법안 사본 첨부)
  - 한나라당 입법안 제출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환영성명 (5.22, 성명서 사본 첨부)

### □ 마사회를 본래의 관장부서인 농림부로 하루속히 환원시켜 정부 기능의 혼선과 낭비를 막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현재의 난국극복에 모아나가야 함.

### 3.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IMF 위기 상황의 축산업 재기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

□ 축산농가들의 숙원사항인 마사회 농림부환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최근 경제위기로 심각한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 IMF사태이후 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투자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은 고갈된 상태임.
-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할 경우 경마사업과 축산발전을 연계한다는 새로운 희망이 축산농가들에게 확산될 수 있음.

#### □ 경마산업 진흥과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연계되도록 지원강화

- 농가의 마필생산기술을 제고하여 세계적인 경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경마발전이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하고, 경마 수익금을 경마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에 활용
- 현재 마사회 이익금중 40%(연간 300~400억원)만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있으나, 마사운영자금 축소 및 이익금 배분방식 변경 등으로 납입금 규모를 효율적으로 증대(년간 2,000억원 수준)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 체육계·문화계에 대한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갈 것임.

#### □ 국적있는 경마로 외화절약과 농가소득증대를 동시에 달성

- 경주마 수입대체로 연간 약 300만불의 외화절약 기대  
- 동일능력의 국내산 경주마가 수입산보다 두당 약 720만원 비용 절감 (국내산 : 2,530만원, 미국산 : 3,250만원)
- 업무이관 이전 농림부에서는 '97년 경주마 자급도 35.6%의 경주마 자급확대 중장기계획을 '91.4월 수립하였으나, '97년 현재 경주마 자급도는 22% 내외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한국마사회에서도 '97.10월 경주마 자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국산마 생산이 담보상태에 있음

여 백

## II. 문화관광부 주장에 대한 검토

여 백

## II. 문화관광부 주장에 대한 검토

### 1. 말이 레저스포츠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므로 경륜과 경정의 경우처럼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경륜과 경정은 인간의 신체적인 운동능력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는 인간이 경기주체인 레저스포츠이나, 경마는 경주마(동물)의 주행능력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로서 우량 마필의 생산과 개량이 뒷바침 되어야 하는 점에서 스포츠와 다름

- 경마는 선발된 우수혈통의 마필개량 성과를 비교 평가하는 수단(Blood Sports)으로 시작된 것이며 『말의 능력 검정과정』의 일환임
- 우리나라 1인당 일평균 경마 마권 구입액이 주요 경마시행국 가운데 홍콩 다음으로 높으며, 이를 건전한 스포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주요국가의 1인당 일평균 마권구입액 현황('95)

홍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464천원	358	258	100	84	78

※ 일본에서의 부처소관을 보면 경륜은 자전거 개량목적 등을 위해 통상산업성에서, 경정은 선박기관의 개량목적을 위해 운수성에서 관장하고 있음

□ 경마 면허를 받은 기수를 운동선수라고 할 수 없고 운동선수가 아닌 기수가 말을 타는 행위를 체육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경마는 말의 능력에 의해 성적이 70% 이상 좌우되어 (馬七人三) 말에게 상금을 주는 말 혈통경기이며, 기수는 말의 경주능력 검정 보조역 임
- 경마장도 경주능력 검정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도록 말을 경주시키는 시설로서 사람이 경기주체가 되는 체육경기장이 아님.

2. 국내산 경주마 생산비용(5,200만원)이 수입가격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육성목장 건설은 경쟁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논리에 대하여

- 농가에서 직접 경주마를 생산할 경우 24개월령 두당 생산비는 83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수입대체로 외화절약 및 경제성 증대가 가능함(마사회 자료)
  - 국산마의 두당생산비가 5,200만원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
    - 씨숫말의 내용년수를 축소(14년 → 3년)하여 600만원이 추가됐고
    - 경주마육성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장비의 감가상각비, 농가교육비, 외부인 견학비 등을 모두 생산비로 계상하여 2,100만원이 추가되었음
  - 마사회 육성목장에서 경주마를 생산할 경우 자급기반 조성에 필요한 infra 투자비를 포함하여도 두당생산비는 2,500만원 수준임
    - 국내산 : 2,530만원/두, 미국산 3,250만원
- 경마에 적합한 2세마는 세계적으로 2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의 고가 우량마가 거래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수입 가격은 두당 500~70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질이 낮은 말 수입을 반증
  - 수입경주마의 60%이상이 해외 현지에서 도태 또는 도태직전의 3세 이상 마필로 경주마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자질이 부족한 수입마에 의한 경마는 마필개량과 육성이 결여된 경마로서 사행심만 유발시켜 마사업무의 일부분인 마권판매 분야만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는 불균형 초래
  - 경주능력이 우수한 경주마들로 경마조를 편성해야 도박성, 조작 시비가 해소되고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이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 경주마 수입을 우량 국내산으로 수입대체할 때 가능해 짐.

3. 농림부 관장시보다 매출 4.3배, 관람객 3.0배가 늘어나 건전한 국민 여가활동에 기여했다는 논리에 대하여

□ '91까지 농림부 관장시 과천경마장을 건설하여 과천경마시대를 열며로서 매출액과 관람객이 증가하는 제2 도약기 경마시대 도래가 가능 했음.

○ '92~'98년간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관장시 과연 마사진흥과 축산 발전이라는 경마의 목격 함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반문이 가능함.

- 과천경마장은 농림부가 마사회를 관장한 시기에 개장 되었음('89.9)
- 마사회의 경주마 자급도 제고 계획('97.10)도 문화부의 승인이 없어 현재 담보 상태인 실정임.

□ 매출규모 증대는 고객편익 시설확충, 장외발매소 확산외에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고도 대중소비 시대를 맞아 국민의 전반적 레저욕구 증대에 기인한 결과임

○ '92년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풍조에 힘입어서 경마매출액이 증가한 것이며, 현재는 경주마 개량 낙후, 인식부족에 따라 사행성 경기로 과잉확대 되었다는 일부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 '98년 6월까지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하여 국민소득의 증감에 따라 경마매출액이 변화 한다는 것을 반증함

□ 농림부가 지속적으로 관장할 경우 현재의 수입산 경주마 대신 혈통이 우수한 경주마의 국내자급을 확산시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경마문화 정착과 관중 추가 확보가 가능해 짐.

○ 경마는 우승예상마가 적중하면 마권을 산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경주마를 다수 확보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때에 사행성이 적어지고 건전한 발전이 기약됨.



여 백

### Ⅲ. 마사회 환원 관련 공약, 성명서 및 언론보도

1. 대통령 선거공약, 입법자료 및 성명서
2. 언론 보도자료
3. 농민단체 건의서, 성명서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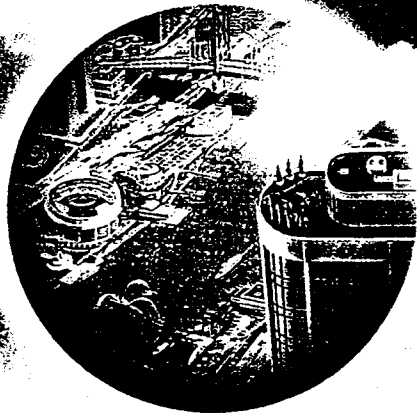
# 1. 대통령 선거공약, 입법자료 및 성명서

여 백


제15대 대통령선거 공약

# 21세기로 가는 길

국난 극복과 내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나의 약속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 V. 희망의 농어촌사회 건설과 동북아 해양중심국 건설

1.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의 부채원금은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는 경감하겠습니다.
  - (1) 직접지불제도의 한 형태로 농어의 부채원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경감하겠습니다.
  - (2) 부채가 없는 건실한 농가와 영세농에 대해서는 비료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고,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3) 귀농가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구조개선사업의 투자기간을 연장하고 첨단과학을 접목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제2의 UR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9)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고 농림부로 일원화된 축산물 가공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동의안 보도자료

행정위원회 이석현의원 ('98. 2. 13)

한국마사회감독권을 종전대로 문체부에 존치한 채, 수익금만 농림부재원으로 전환하자는 일부주장은 비효율적인 주장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반영하여 마사회를 농림부 산하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없이 한국마사회를 문화체육부산하에서 농림부산하로 이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에 양측 모두 이를 누락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담아 본의원이 지난 2월 10일(화)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측이 “그러면, 한국마사회의 감독권은 문화부에 종전대로 존치하고 수익금만 농림부재원으로 전환하자”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주장이다. 감독청을 농림부로 옮겨, 농림부가 마사수익금을 축산진흥에 쓰도록 해야한다.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마는 말들의 달리기 능력을 수단으로 한 오락이고 체육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수단으로 한 건전한 여가선용 오락으로써 경마와 체육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2. 마사회법상 경마시행의 목적이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으로 되어 있고 말의 개량 증식과 축산진흥은 농림부의 고유업무이다.
3. IMF한파와 축산물수입자유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업구조개선과 농민복지증대의 투자지원 확보가 시급하다.
4. 더구나 여당의 정부조직법개정안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의 명칭에서 체육을 떼어내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부처간의 사무는 정부조직법의 부칙을 개정, 무수히 조정해왔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개정안 부칙4조에 한국마사회법개정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자고 하는 것은 마사회법의 제정취지를 되살리고 각 부가 갖고 있는 고유업무에 맞게 사무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제출 취지가 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아직도 합의에 도달치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아무쪼록 심도있게 논의되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998년 2월 13일

행정위원회 이석현 의원

첨부 : 행정위 이석현의원 수정동의안 취지선명<뒷면참조>



## <행정위 이석현의원 수정동의안 취지설명>

마사회를 문체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위원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수정동의안을 내는 취지-

한국마사회는 1922년 설립부터 농림부가 관장해 왔으나, '90년 4월 노태우 대통령의 경마를 "국민레저스포츠로 종합육성하라"는 지시에 의해 그해 12월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 '92년 1월부터 체육청소년부(현 문화체육부)로 이관,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에는 경마시행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말의 개량·증식과 축산진흥은 농림부의 고유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부(현 문화체육부)로 이관한 것은 한국마사회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6공 당시 대표적인 비민주적 행정조치의 예로 들만하다.

농림부에서 마사회를 관장할 경우 IMF 한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경마시행과 마필생산을 직접연계시킬 수 있어 소득 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마사회의 수익금은 축산물 수입 자유화로 국제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축산업구조개선과 농민복지증대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없이 농민 및 관련단체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앞서 마사회법의 제정취지를 되살리고 '90년 12월 당시 변칙적으로 이루어졌던 비민주적인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야 어느쪽 안에도 마사회의 이관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부칙 제4조에 <한국마사회법개정>에 관한 항목을 추가,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본의원은 제출한다.

## 聲明 : 농업투자계획 서둘러야

- 2段階投資計劃立案을 서두르라 -
- 農特稅 廢止방침을 撤回하라 -
- 韓國馬事會 農林部移管에 同參하라 -

- IMF換亂 극복을 위한 금년도 追更에서 農漁村特別稅(農特稅)事業費에서 2,347억원을 삭감하고, 특히 農漁村投資事業 특히 42조원 構造改善事業에 산은 무려 1조 2,226억원이나 감액함으로써 금년에 42조원사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려던 우리당의 당초계획이 그대로 承繼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특히 여권 일각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效率性(執行上的 효율이 아닌)을 이유로 투자규모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농어촌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은 우리당이 계획했던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정히 촉구한다.
- 이와 함께 지난달 재경부 稅制發展審議委員會에서는, '94~2004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여 UR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農特稅의 廢止를 검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차제에 우리당은 농특세의 계속 존치 뿐 아니라 여타의 농수산업 관련 각종 稅制減免措置를 계속하고 擴大함으로써 農水産業競爭力強化의 내실화를 더욱 다져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은 韓國馬事會의 조속한 農林部移管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와 관련된 立法조치를 추진중인 바, 특히 집권여당 역시 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을 공약했던 점을 감안, 우리당의 입법계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998. 5. 7.

한 나라 당 정 책 위 원 회

## 농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 추진

공동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98.5.18(월) 15:00 국회에서 김원길·이태섭 양당 정책위의장과 장영달·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WTO와 IMF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긴급 10대 농촌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 농촌살리기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

- ① 한국마사회를 원래대로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년내에 완료한다.
- ②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의 통합에 따른 「농업정보품질 관리원(가칭)」의 지역배치 문제는 지원은 도별로 1개씩 설치하고 출장소는 주요 시군별로 1개소씩 존치한다.
- ③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농가부채조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부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부채경감 대책을 강구한다.
- ④ 당면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자금 5,707억원의 상환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 ⑤ 농어촌특별세는 그 제정취지를 살려서가 급적존치하되, 세제종합 개편의 일환으로 본세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15조원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한다.
- ⑥ 소값 안정을 위해 소수매는 UR/WTO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계속 실시하고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송아지 가격안정대책과 병행 실시한다.
- ⑦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우유 및 분유소비 촉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⑧ 농산물직거래 지원조항을 포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년내에 제정한다.
- ⑨ 김포 간척지는 당초 조성 목적대로 농지로 사용한다.
- ⑩ 농업인들이 어엿한 경제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단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보일 경우, 예산조치를 비롯 농업회의소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1998. 5. 18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의장 김원길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이태섭

**【보도자료】**

**한나라당,  
韓國馬事會農林部還元 관련 법안제출**

- 한나라당은 5월21일 이상배·강현욱의원 外 32인의원의 이름으로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환원하도록 하는 政府組織法改正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으로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을 공약한 바 있어 이날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정부여당이 환원원칙만 확인하고 이를 차일피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축산농민과 생산자단체가 벌이고 있는 「의원200인 청원운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 이로서 1990년 문화체육부로 옮겨던 마사회를 7년여만에 농림부로 원상회복하게 되며 앞으로 축산농민 지원과 마필의 개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1998. 5. 2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 783-9811 구내 242)

##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議案 番號	1076
----------	------

發議年月日：1998. 5. 21

發議者：李相培·權五乙

金光元·金東旭

辛相佑·尹漢道

李康斗·李佑宰

李海龜·全錫洪

朱鎮吁·姜賢旭

議員外 34人

### 提案理由

- 農林部가 修行하고 있는 業務內容을 명확히 하는 한편, 韓國馬事會를 農林部로 移管하므로써 이 法의 制定 目的인 馬事의 振興 및 畜産의 發展을 效率的으로 履行토록 하고자 함.

### 主要骨子

- 農林部 長官이 管掌하는 事務內容을 農産·園藝·特作·食糧·農村開發 및 畜産으로 함.
- 韓國馬事會를 現行 文化觀光部에서 農林部管轄로 바꿈.

法律第 號

##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農林部長官은 農産 · 園藝 · 特作 · 食糧 · 農村開發 및 畜産에 관한 業務를 掌理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馬事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第4條第1項 · 第2項, 第9條, 第15條, 第16條第1項, 第23條 第2項, 第24條第2項, 第27條第1項 · 第2項, 第30條, 第32條 第3項第7號, 第37條, 第39條, 第40條, 第41條, 第42條第5項, 第43條第1項, 第44條第1項 · 第2項, 第45條, 第46條 및 第61條 第1項第1號 · 第2項 내지 第4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2項, 第7條第2項, 第10條第3項, 第13條第2項 및 第40條 第2號중 “文化觀光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 新 · 舊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改 正
<p>第36條(農林部)①農林部長官은</p> <p>農産 · 蠶業 · 食糧 · 農地 · 水利</p> <p>및 畜産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p> <p>다.</p>	<p>第36條(農林部)①.....</p> <p>.....園藝 · 特作 · 食糧 · 農村開</p> <p>發 및 畜産에 관한 事務를 掌理</p> <p>한다.</p>



# 논 평

-한나라당의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관련 법안제출에 관하여

- 공동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98. 5.18 (월) 15:00 국회에서 김원길·이태섭 양당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낭정 회의를 갖고 WTO와 IMF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을 포함한 긴급 10대 농촌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것은 과거 역대 정권에서 농민의 7년 여 숙원사업을 무참히 짓밟아 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킨 「국민의 정부」의 획기적 조치이다.
- 이에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모처럼 여당의 결정에 대해 법안을 제출하여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 앞으로 다른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의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협조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8. 5. 22.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 장영달

- 근로자와 더불어

농어민도 바라보라 -

- 7월14일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차관등 관계관을 불러 정책간담회를 갖고 IMF환란으로 고통받는 농업인 애로타개 방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환란이래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측에 촉구하고 전농민의 파산으로 이어질 농가 부채에 대한 원천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은 IMF환란으로 실업대책이나 SOC에만 매달려 국가존립의 기본이 걸린 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자에 소홀하다고 전제하고 근로자 보다 더 어려운 농어민, SOC보다 더 증용한 농업기반을 위해 이번 제2회 '98추경예산에서 1조원이상의 농어촌특별대책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998. 7. 14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 일동  
이상배, 권오을, 김광원, 김동욱, 신상우, 윤한도,  
이강두, 이우재, 이해구, 전석홍, 주진우

# 성 명

## - 근로자와 더불어 농어민도 바라보라

- IMF환란으로 고통받기는 都農이不二이고 실업자와 농어민구분이 없을 것이나 서울역 지하철도에서 踏踏을 할지언정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기는 예년과 다름이 없다는 점은 농사 일이 얼마나 어렵고 농어촌의 비전이 얼마나 無望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 물이나 공기외 고평음을 잊어버리기 싫상이지만 농업의 역할 역시 자칫 간과하기 쉽다. 지난해 11월의 환란때 설탕·리펀의 買占價格이 거래질서를 긴장시켰지만 우리의 주식인 쌀만큼은 아무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식량자급이나 농업생산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돌아 보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 濼滅하겠다던 農漁民負債를 국민회의가 IMF를 핑계로 뒤로 미루고 있고 두 차례의 追更을 통해 실업자 대책으로 수조원을 책정하고 SOC를 위해서도 수조원을 계상하면서도 기반의 붕괴에까지 이른 축산업계의 고평이나 갈아엎는 배추밭 농민의 이쁨은 외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왕에 설치된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하려는가 하면 마사회 농림부 이관도 뒤로 미루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후속투자계획 마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 IMF환란으로 실업대책이나 SOC에만 매달려 농수산업의 중요성을 바로 보지 못하는 국민의 정부는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되는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농어촌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 아 래 -

- 근로자보다 더 어려운 농민 SOC보다 더 중한 농업기반을 위해 정부여당은 '98 제2회 追更에서 연말이면 파산지경에 이룬 농어촌의 부채대책을 포함, 폭등한 농자재 값·폭락하는 농축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한 특별재원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여당은 내년도에 시작되는 제2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을 조속히 청안 추진해야 한다.
- 정부여당은 농특세 폐지 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익당의 한국마사회 농림부 이관 관련 법개정작업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 특히, 정부여당은 개값도 안된 소값의 인정·소의 사료가 된 養牛飼料 하소·갈아엎는 야채가격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값 인정제 즉각 실시·소·젖소수매지속·생우/분유의 대북 지원, 무배추의 가격보장 등 시급한 懸案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1998. 7. 14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 일동

이상배, 권오을, 김광원, 김동욱, 신상우, 윤한도,

이강두, 이우재, 이해구, 전석홍, 주진우

## 2. 언론 보도자료

여 백

# 마사회 농림부로 이관될까

현재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마사회(회장 김봉조)의 농림부 이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농업분야의 선거공약으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강조했었다. 따라서 경마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후 내년 봄쯤 한국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경마산업 중심은 경주마 생산 육성”

### 새정부 정책 주목

김대중 당선자는 유세기간 수차례 농업분야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경마는 경주마를 생산하고 키우는 1차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문화체육부가 한국마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동안 경마를 주관하는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마가 실시된 이래 줄곧 농업정책 정부기구가 맡았다. 1923년부터 1941년까지는 경마구락부



한국마사회 감독부처의 농림부 이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에 열린 야간경마모습.

에서 경마를 관장했으며 1942년 조선마사회가 설립되자 조선총독부 농림국이 관리 했다.

그러다가 해방후 조선마사회는 관장부서 없이 운용돼 오다가 1962년1월20일 국회에서 법률 제1012호로 한국마사회법이 제정되며 농수산부의 산하기관이 됐다. 이후 90년 12월27일 법률 제4268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자 마사회는 92년 1월1일 체육청 소년부로 이관됐다. 93년3월6일 법률 제4541호로 다시 정부조직법이 바뀌며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로 이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마관계자들은 한국마사회의 상급기관이 농림부로 바뀔 경우 경마문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마사회의 한 간부는 “그동안 한국경마는 경주마 생산 토양이 빈약해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마권판매 분야만 비대해졌다”고 비판하며 “농림부가 경마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경주마 생산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 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마문화의 선진화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마주협회의 권동섭 상근부회장은 “선거공약이 하루 속히 실현돼 안정된 정책 속에서 경마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마 관장 부서의 농림부 이관은 경주마 생산, 육성 농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병현 경주마 생산자협회장은 “현재 한국마사회가 출연하고 있는 축산진흥기금이 경주마생산에 직접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경마장 동시건설, 육성목장 확대 등의 사업도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金文永기자>

## 축산업 구조조정 전기마련

여권과 농림부가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마사회를 농림부로 연내 환원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마사회 이관을 둘러싼 농림부와 문화관광부간의 마찰은 일단락됐다.

마사회는 지난 49년 설립 이래 농림부 소관이었으나 92년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됐었다.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신정부 들어선 이후 농업단체를 앞세운 농림부의 강공이 먹혀든 것.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경주마 자급률 제고 ▲축산발전기금 출연금 증액 ▲마사회 운영 효율화 등이다.

말의 개량·증식에 따른 우량종마의 공급이 늘어나 경주마 자급률이 현재 22%에서 오는 2005년에는 75%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마의 수입대체로 인해 연간 192만달러(27억원)의 외화가 절약되고 말 사육농가의 소득도 늘어 나게 된다.

### 마사회 농림부 환원

### 발전기금 출연 2배증액

### 경주마자급률 높여

### 말사육농가 소득 향상도

농림부가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에 메스를 가할 경우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경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축산발전기금 출연을 2배로 늘릴수 있어 국제

통화기금(IMF)사태와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억~400억원인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큰힘이 된다.

마사회는 지난해 3조3,408억원의 매출액에 1,319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초우량 공기업이다.

(연성주 기자)

## 논쟁

### '마사회' 농림부 재이관



서성배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지난 18일 당정회의에서 한국마사회 관장부처를 농림부로 환원키로 한 것은 마사진흥이나 축산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경마는 말을 달리게 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승부의 70% 이상이 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주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경륜·경정 등의 레저스포츠와는 구별된다. 이런 연유로 마사회법은 경마의 목적을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도 농림부의 고유한 업무대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49년 마사회가 설립된 이후 92년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농림부가 관장해왔다. 현재 일본·영국·캐나다·

### 馬匹개량·증식 병행

### 축산발전 도모 바람직

프랑스·독일 등 주요 경마시행국도 농림부에서 마사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경마시행과 국내 마필 생산을 직접 연계시켜 경주마 자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경주마 국내자급도가 20%밖에 안돼 연간 3백만달러의 외화를 경주마 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마들은 최고시가가 1억원 이상에 달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60% 이상의 경주퇴역마를 평균 5백만~7백만원에 수입, 경주마로 활용하는 등 마필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인정 경주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마의 핵심자원인 경주마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국적없는 '식민지 경마'이며, 시행심만 유발시켜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도 큰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수한 혈통의 자국 마필 개량증식이 경마시행과 병행될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경마문화 정착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인·관련단체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전반적인 농업의 어려움으로 상실감과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IMF 한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기고

## “마사회 농림부이관 마땅”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업무를 원래 소관부처인 농림부로 이관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가 도입된 지난 49년 이래 농림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경마, 경주마 개량 및 번식·증식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지난 90년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전격 이관됐다.

뒤늦게나마 당정이 지난 5월 마사회를 종래대로 농림부로 환원키로 결정한 것은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마가 단순히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



張 原 碩  
단국대 농업정책학과교수

락으로 끝나지 않고 본래 목적인 경주마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반대하는 측은 경마는 레저 스포츠이며 경주마는 경마를 위한 운동용 도구로 축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마의 본질과 목적을 모른 채 승마와 경마를 혼동하는데서 나오는 발상으로 저질의 수입경주마에 의존한 경마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경마는 말(馬)의 능력에 의해 70% 이상 좌우되어 마칠인삼(馬七人三)의 가축혈통 경기이다. 고객은 스타선수인 경주마와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명마를 기대하며 경마에 참여한다. 즉 우수혈통의 경주마를 경마에 연결함으로써 고객은 경마를 하나의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만큼 우수한 경주마의 육종번식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마땅하다. 마사회 이익금의 체육문화계 지원보다는 경마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 경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마는 축산업이 아니다'에 대한 반론 경마는 말이 주체...농림부서 관장해야

### ■ 경향신문을 읽고

지난 20일자 9면에 실린 「경마는 축산업이 아니다」를 읽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경마에서 말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오히려 경륜이나 경정과 달리 경마에서는 말이 주체이다. 반면 경륜과 경정의 성적은 자전거나 배의 능력에 좌우되기보다는 사람의 지구력이나 기능 등 인간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주마가 거액에 거래되고 있고 은퇴 후에는 우량한 후대 생

산을 위해 활용되는 등 축산분야와 연계돼 있다. 1949년 설치 이후 1991년까지 농림부에서 관장하던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게 된 경우나 한국마사회법상의 설치 목적을 언급하지 않아도 경마가 농림부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알 수 있다. 농림부에서는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경주마의 국내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경주마 자급 증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경주마 생산지원사업을 통해 경주마의 자급도를 22%까지 향상시켜 놓고 있다.

이상수 / 국립농산물검사소 사무관

### 마사회 농림부이관 당연

「마사회 농림부 이관 안될 말」 논단(23일치)을 읽고 반론한다. 첫째 경마는 승마와 달리 레저스포츠보다 사행성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한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았고,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금사용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위해 내무부·주정부·농업관련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둘째 도시국가인 홍콩을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주마 자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마산업에 외국산 말을 계속 쓸 경우 외화유출이 크고 산업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농림부가 마사회를 관장하던

시기는 국민소득이 5000달러대였던 시대로 경마산업이 확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뒤 크게 발전했다기보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수준을 초과해 과잉확대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승마는 문화체육부에서 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나가되, 마사회는 농림부로 원상복귀해 국민경제와 축산업 발전과 조화를 꾀해 육성해나간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김형재/농림부 직원

## 국민일보('98. 6. 27)

**찬** 정부여당은 마사  
회의 소관부를 본래  
의 목적에 맞게 연내  
에 농림부로 환원하기로 결정  
했다. 지난 49년 농림부가 실  
립 인가해 관장해오다 92년  
당시 체육청소년부(현재 문화  
관광부)로 이관된 마사회를  
제자리로 환원하는 것은 마사  
회 발전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경마는 단순한 경기용 소모  
품이 아닌 생명체인 말을 달  
리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  
기로 우수혈통의 마필을 개량

### 마사회 농림부 이관

게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말이  
레저스포츠의 도구  
에 불과하므로 경륜  
처럼 문화관광부에  
서 계속 관장해야 한  
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마는 마사진흥 및 축산발  
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말의 개량증식에 의한  
경마행위는 축산정책 대상이

### 마필육성도 축산정책대상 “당연”

하는 수단으로 발달해 왔다.  
또 경마는 면허를 받은 기수  
만 기승할 수 있어 기수가 말  
을 타는 행위는 체육활동이라  
고 보기도 어렵다.

흔히 경마를 가리켜 마칠인  
삼(馬七人三)이라 하는데, 이  
는 그만큼 말의 혈통이 중요  
하다는 얘기다.

경주마를 운동용 소모품으  
로 격하하는 것은 카지노 기  
계를 설치하여 도박업을 차리

다. 경마시행과 마필생산을  
연계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  
편 경주마 수입대체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사회 소속문제  
는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순  
수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합  
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  
다.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  
착실한 경주마 육성이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육완방(건국대 축산대 교수)

# 社 說

축산업계의 숙원중 하나인 마사회문제가 계속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마사회문제는 지난 대선때 김대중대통령이 농림부로의 환원을 공약함으로써 축산인들은 한때나마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이문제는 유아무야되는 바람에 축산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이 김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장해야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문제는 마사회의 설립목적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마사회의 설립목적인 마필개량과 마사(馬事)진흥, 그리고 축산진흥은 누가 봐도 농림부가 수행해야할 영역이다. 마사회문제를 축산인들이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마사회운영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이기 때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순수성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한마디로 년센스가 아닐수 없다.

## 마사회이관 늦출이유 없다

원인이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는 비협조때문이란 점에서 축산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여당에 몰담고 있으면서 마사회의 체육부이관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 일부인사들이 현여권에 몰담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마사회문제는 92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정부내 실세들과 함께 정부조직법부칙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변칙 처리한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마사회를 체육부소관으로 넘길 당시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던것도 아니다. 오직 있었다면 실세들의 입김과 밀어붙이기를 능사로 알던 다수의 힘뿐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마사회는 문화관광부가 관

일본의 경우에도 경마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축산발전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경마는 농림수산성이 관장하고 있다. 또 관장부처가 어디든 축발기금만 제대로 출연하면 되지않는다는 논리도 년센스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리가 아무런 공중이속이 없는 진실에서 비롯된것이라면 편법까지 동원해 마사회를 농림부에서 빼간 이유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경마는 체육이 아닌 사형성 오락으로서 이로 인한 수익은 원래목적대로 축산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사회이관문제에 관련한 원죄(原罪)를 지고 있는 정치권은 이를 바로 알기를 거듭 촉구한다.

한국농어민신문 5월 18일(월)

# 마사회 농림부환원 강력 추진

## 한농연 서명운동 전개, 6·4선거 출마자 공약 유도도

### 54개 농업관련단체 추진위 구성, 결의대회 개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를 비롯 관련단체들이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운동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농연은 지난 3월31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뒤, 전국 도·시·군연합회 등 조직을 이용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현재 10만명의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은 이미 해남군, 하동군, 충주시, 남해군 연합회 등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농연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농업경영인후보 3백여명의 공약사항으로 마사회 농림

부 환원을 위한 적극활동을 공통되게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론조성을 위한 가두행진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 한농연은 마사회 환원문제를 올해의 최대 중점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올 8월에 개최될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서도 대형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달 54개 농업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목적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 추진위는 대내외 여론조성, 언론홍보,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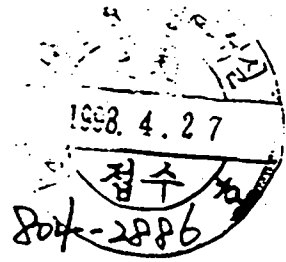
청원입법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현재 추진위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장, 3당총재, 국무총리, 국회농림해양위원 등 관계요인에 건의문 발송작업을 끝냈고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소속단체 지역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농연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완료된 후 청와대와 국회, 정부 유관부서 등 각계에 서명운동 사본을 발송하는 등 농림부 이관작업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각오"라며 "늦어도 가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 3. 농민단체 건의서, 성명서

여 백

김 대 중 대통령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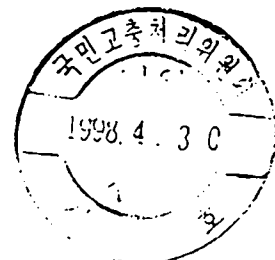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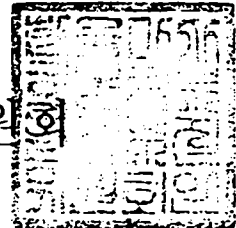


건의문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

1998. 4. 23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내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건의

1. 나라경제 안정과 국정 수행을 위한 크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농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 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시점에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야말로 공약 실천과 축산업의 안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IMF 한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들로서는 생산비 인상 부담으로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업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3.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대통령께서 제시한 대선공약일뿐더러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도 수차례 걸쳐 공개 약속하셨고, 대선 당시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한나라당 대표도 공개리에 약속한 사항이므로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부처 조직개편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도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이 누락된데 대해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의 실망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였고, 다행이 이석현 의원이 수정법안을 제출하였기에 기대하였으나, 결국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5. 마사회법상 경마의 목적이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으로 되어있고 말의 증식·개량과 축산진흥은 농림부의 고유업무이거니와 문화체육부가 개편되어 체육기능은 민간에 이양된채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으므로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 존치시킬 명분이나 목적마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6. 새정부가 한국마사회법의 제정취지를 살리면서 농축산업의 안정재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6공당시 비민주적인 변칙절차로 잘못 이관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마사회는 조속히 농림부로 환원조치되어야 합니다.
7. 이에 우리 농민단체 일동은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으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결정하여 차기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의 실현을 기대하오니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산학협동연구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흑염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무순)

자유민주연합 총재 귀하

## 시급한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

이명박	48		
8.1.2	98-43		
민원주	UKY		

1998. 1. 13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521 7181, 팩스 584 5144)

## 시급한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

우리농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하게 될 새정부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개혁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만이 장기적인 나라 경제의 안정과 직결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실천을 통해 확인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농정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IMF한파의 어려움속에서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정부의 충정과 애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농업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새정부의 위기국면 대처방안은 자칫 국면전환이라기 보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까 우려됩니다. 정권인수단계에서 국민의료보험통합을 백지화하려 하고, 사료에 대한 부가세 철폐방안이 제기되는가하면 대안없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 삭감이 논의되는 등으로 우리농민은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 너무도 큰 실망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결정은 정권인수위나 비대위가 논의할 사안이라면 이러한 반 농업적 발상에 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불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인수단계에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도록하여 중요한 농업관련사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농민들의 큰 분노를 유발시키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의 애정과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시키려면 일련의 농업포기를 강요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논의자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인내하고 있는 농민들이 처음부터 실망하지 않도록 제시된 공약만은 최소한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 사료 등의 부과세 면세율 적용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폭등에 따른 배합사료·유류 가격폭등으로 축산업과 원예산업은 폐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사료값이 무려 60% 가까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종전 외상거래에서 현금으로 사료 구입을 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가축의 시장 방매가 줄을 잇고 있는데다 경기부진으로 축산물의 소비는 위축되고 값은 폭락하여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상태로 간다면 대다수 축산농가와 시설채소 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나라 전체가 겪는 어려움으로 여겨 어디에도 호소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은 면세로 전환하여 축산농가에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시키겠다는 재경원의 발상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산을 포기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과세부담은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라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타산업과 달리 축산업의 기반 붕괴는 재건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으로 더욱 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을 이해하셔서 세제관련 추가부담 발상 자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는 농림부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은 농업중 그나마 경쟁가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함에도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나마 축산발전기금도 곧 고갈될 처지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 한국마사회를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시켜 마사 수익금으로 축산기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공 정부의 대표적인 부당 행정기관의 표본이 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권 문제는 당초대로 농림부로 환원시켜 시급한 축산기금조성 재원이 되도록 조치하여 축산업의 도산을 막고, 안정대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도 개혁 차원에서 한국마사회의 이관문제는 차질없이 농림부로 이관될 것임을 농민들이 확신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수입축산물의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와 갈수록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고 국제경쟁에서의 생존전략을 조속히 수립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자면 영세한 사육기반을 경쟁적 체제로 구조개선하기 위한 일정기간의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국내 축산업은 UR협상이후 수입축산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생산 기반만이라도 조성되도록 한다면 경쟁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시켜 국내 축산업에 환원 투자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수입 쇠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일본 화우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쌀 다음에 한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대책이 없음을 유의하여 수입 축산물 관세의 목적세 전환을 제도개혁 차원에서 조속히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 13

## 전 국 농 민 단 체 협 의 회 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 韓國馬事會의 農林部還元 早速 推進 要請

尊敬하는 國會議長님과 國會議員 여러분들의 議政活動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健勝을 빕니다.

國會에 提出된 政府組織法改正法律案에 韓國馬事會의 農林部로의 還元措置가 漏落된데 대해 100萬 畜産農家를 代表하여 失望과 衝擊을 느끼면서 政府組織法改正法律案이 修正通過되어 韓國馬事會가 農林部로 조속히 還元될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실 것을 請願합니다.

1. 원래 競馬의 目的은 競走成績을 參考로 優良한 種馬를 選拔하여 增殖하는 것으로 우리의 韓國馬事會法에도 競馬施行의 目的은 馬事振興 및 畜産發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競馬가 정상적 으로 維持·發展하기 위하여는 망아지의 生産·育成등 增殖基盤과 馬의 競走能力 向上을 위한 改良 基盤이 構築되어야 하며 馬의 改良·增殖과 畜産振興은 農林部の 固有業務입니다. 農林部에서 馬事會를 管掌할 경우 競馬施行과 馬匹生産을 직접 連繫시킴으로써 農家所得 増大事業을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으며 馬事會 存立 名分을 強化하게 되는 것은 當然한 理致입니다.
2. 馬事會 關聯 收益金은 畜産物 輸入自由化로 國際競爭力 向上이 時急한 畜産業 構造改善과 農民福祉增大등의 投資財源으로 活用되어야 합니다. 현재 畜産 發展基金의 主要 財源인 輸入쇠고기 販賣利益金이 最近 換率上昇으로 急激히 減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 輸入이 完全自由化되는 2001년에는 없어지게 되므로 馬事會의 收入利益金이 今後 畜産業發展을 위한 主要 財源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해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馬事會의 農林部 還元은 정부의 豫算없이 農民 및 關聯團體들의 宿願 事項을 解決해 줄 수 있는 絶好의 方案입니다. 馬事會의 農林部 還元이 實現될 경우 政府의 農業發展에 대한 강한 意志를 천명하는 效果를 얻게 되며 農民들의 士氣를 鼓吹시킬 수 있습니다.
4. 특히, IMF 寒波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畜産農家들로서는 生産費 引上 負擔에 못이겨 倒産과 廢業이 續出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畜産業 基盤自體가 根本적으로 崩壞될 위기에 처해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切迫한 狀況에서 이미 大統領 當選者가 누누히 強調하고 公約한 馬事會의 農林部 移管措置가 政府組織法 改正案에 들어 있지 않다는 點은 農畜産業의 現實 把握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5. 따라서, 이번 政府組織法 改正過程에서 지난 '90년 아무런 正當한 이유 없이 農林部가 관장해 왔던 馬事會를 體育靑少年部로 이관했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政府組織法附則을 다시 改正하여 馬事會를 農林部로 還元시킴으로써 馬事會의 存立 名分을 強化하고 畜産發展을 위한 財源을 確保함과 동시에 失意에 가득찬 畜産農家들의 士氣를 북돋아 줄 것을 간곡히 請願드립니다.

1998. 2. 10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長	宋 燦 源
韓國酪農育牛協會長	金 南 龍
大韓養豚協會長	全 東 龍
大韓養鷄協會長	崔 峻 玖



## 성명서

###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라 -

국회에 제출된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조치가 누락된데 대해 우리는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과연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구조 조정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IMF 한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로서는 생산비 인상 부담에 못이겨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업 기반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축산업의 기반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누누히 강조하고 공약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조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농축산업의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한국마사회는 1922년 설립부터 농림부가 관장해 왔던 것을 그 혼한 공청회 한 번 없이 마사수익금을 노린 탈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하여 체육청소년부로 이관시켜 6공당시 대표적인 비민주적 행정조치의 예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에는 경마시행의 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농림부의 고유 업무임을 확인시키고 있거니와 다른 나라의 경우 역시 농림부 관장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마사회를 농림부에 존치시킴으로써 수입 쇠고기 판매 수익금의 감소로 바닥나게 될 축산발전기금의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에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서는 아니 됨을 밝힌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반드시 환원 할 것을 요청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마사회 관장권을 반드시 농림부로 이관시켜야 됨을 강력히 밝힌다.

1998. 2. 9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521 - 7181, 팩스 584 - 5144)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 성명서

# 한국마사회를 즉각 농림부로 환원 조치하라

IMF한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에 있어 활로모색과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고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인상 부담으로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기 국면이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민과의 대화중에서 김대통령이 수차례 걸쳐 약속한 바 있거나 대선당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한나라당 이한동 대표의 공약사항이므로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공개리에 제시한 합의사항이다.

마사회법상 경마의 목적이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으로 되어 있고, 말의 증식 개량과 축산진흥은 농림부의 고유업무이거나 문화체육부가 개편되어 체육기능은 민간에 이양되어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으므로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 존치시킬 명분이나 목적이 상실된 상태이다. 또 90년 6공 당시 마사회가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될 때 비민주적인 변칙절차로 잘못되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누락시킨 데 대해 우리의 실망이 이를 데 없음을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6. 4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시키는데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마사회 환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할 것임을 밝힌다. 유권자의 서명운동과 지역국회의원의 입법추진 서명 받아내기 등을 전개하여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실현시킬 것이다.

마사회 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해하여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축산업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한다면 한국마사회를 즉각 농림부로 환원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1998. 5. 13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종축개발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산학협동연구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혹염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무순)

## 성명서 농정현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

국민회의·자민련과 농림부와와의 5월 18일 당정 협의결과를 환영하며 농민의 뜻을 적극 수용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18일 정오에 19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인 오후 3시 동 장소에서 가진 당정협의 결과가 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적극 수용코자 한 점은 여당의 농정의지를 새롭게 확인 시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인 한나라당이 농민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특히,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불가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가부채조사협의회 설치, 3년내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약속,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원 및 생협법 제정 등은 농업계의 최대 현안을 수용한 것으로 정부 농정의지를 높이 평가하게 한다.

다만 농특세를 존치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농업발전을 위한 2단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특세는 지난 UR/WTO 협상에서 쌀까지 개방한 농정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동시에 전국민의 합의 사항인 점을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당정협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하며, 농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함을 밝힌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즉각 실시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환영을 표시 한다.

1998년 5월 18일  
농민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참가 19개 농민단체  
(전화 : 521-7181, 팩스 : 588-7855)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영농법인중앙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포도회  
(가나다 순)

## 성 명 서

### 한나라당의 마사회 농림부 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소속 강현욱 의원등 34인이 공동으로 지난 21일 제출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것에 대해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농민의 숙원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나라당에 감사드린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시 조직개편 과정중 제외되어 전국의 양축가를 비롯 농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이에 농축산 관련 60개 단체가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회의원 200명 서약 받기」운동을 추진하는 중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지난 당정회의를 통해 농림부 환원 절차를 연내에 마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절차만 마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모두 나서서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으로 농가부채 해결의 재원 마련과 편법으로 잘못 이관된 관할권을 제자리에 옮겨놓는 일에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환영한다.

1998. 5. 22

###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전화 : 02-588-7055, 팩스 : 584-5144)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협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유기공협회, 한국육류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제육산업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산학협동연구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염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기공기술파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가축분뇨자원화학회,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대한수의학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무순)

## 성 명 서

###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에 관한 문화관광부의 조직적 방해를 규탄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축산진흥과 농가부채 해결 등 한국농업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추진중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언론투고와 국회진정서 제출 등의 조직적인 방해를 행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이와같은 국론분열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은 새총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계 단체를 증용하여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저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반대운동은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합을 합쳐야 하는 시점에서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화·체육계 단체의 이름을 앞세운 조직적 반발 중에는 신선한 개인의 권리를 유린한 체 차명에 의한 언론투고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데는 크나큰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련과 한나라당도 대선에서 굳게 약속한 바, 일찍이 정치권의 합의사항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18일 당정협의와 6월 22일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추진을 거듭 확인하였고, 한나라당은 5월 21일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원입법을 추진중에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회의가 또한 적극 환영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마사회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고, 지난 5·6공에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문화관광부로 강제로 이관되었던 한국마사회이 농림부 환원은 이제 절차상의 문제만을 남겨놓았다. 이는 IMF경제의 최대 희생자로 파산직전에 이른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회생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체육관련단체들은 이미 합의된 국론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위한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에 나서 이제라도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1998. 7. 9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 02-521-7181, 팩스 : 02-584-5144)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참고>

마사회 농림부환원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              |                |
|--------------|----------------|
| 농협중앙회        | 축협중앙회          |
| 임협중앙회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 전업농중앙연합회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 한국낙농육우협회     | 대한양돈협회         |
| 대한양계협회       | 한국기독교농민회       |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유기농업협회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생활개선중앙회        |
| 한국포도회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 한살림          | 국제농업개발원        |
|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 정농회            |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한국영농입인중앙회      |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한국단미사료협회       |
| 한국사료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       |
| 한국유가공협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
| 한국육가공협회      |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
|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한국양봉협회         |
|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 한국양록협회         |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 한국양돈연구회        |
| 양돈산학협동연구회    | 한국오리협회         |
| 한국흑염소협회      | 대한수의사회         |
| 한국동물약품협회     | 한국축산학회         |
|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 한국초지학회         |
| 한국낙농학회       | 한국영양사료학회       |
| 한국가축번식학회     | 한국가금학회         |
|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축산분뇨자원화협회    |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한국수의공중보건협회     |
| 대한수의학회       |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한국진도견보존협회      |